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3월 9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.8.(화) 오후 5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3. 8.(화)	담당부서	다자통상협력과
담당과장	장재량 과장(044-203-5930)	담 당 자	최정연 사무관(044-203-5933)

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와 국제적 공급망 복원을 위한 협력 강화 논의

- 한국의 산업정책 및 공급망 강화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 및 공급망 강화 노력을 지원 -

- 국제기구 한국인 진출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강화 방안 논의 -

□ **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**은 3.8(화) 17시 **유엔공업개발기구(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, UNIDO) 게르트 뮐러(Gerd Müller) 사무총장**과 화상면담을 진행함

※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: UN 소속기관(전문기구)으로서 개도국의 공업·산업 발전의 현대화를 지원하고, 이를 위한 개도국-선진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

<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개요 >

- (연혁) 1967년 유엔총회 직속기구로 발족, 1985년 유엔의 16번째 전문기구로 개편
- (소재) 오스트리아 비엔나 / (회원국) 170개국 *우리나라는 '67.1월 창설회원국으로 가입
- (기능) ▲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개발, ▲개도국 공업개발 확대 및 현대화 지원, ▲개도국 간 및 선-개도국 간 협력촉진, ▲공업개발 관련 유엔기구 활동 조정 등

□ **신임 사무총장** 부임을 계기로 성사된 이번 면담에서는 △개도국의 **원부자재 공급망 강화,** △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이후 **녹색전환** 등 측면에서 **개도국 산업발전** 지원, △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등 **국제기구에서 한국인 역할확대 등 상호관심사에 대한 협력방안**을 논의함

□ 여 본부장은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창설 당시('67년)와 비교해 한국이 **단기에 성공적 산업발전**을 이루어 **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CPI* 지수**에 따르면 **세계 5위의 산업경쟁력**을 갖춘 바, 이러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**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**이라는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의 과업이자 국제사회의 주요 **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**고 언급함

*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에서 발표하는 산업경쟁력 지수(Competitive Industrial Performance Index)로 최신 통계인 '19년도 기준으로 1위(독일), 2위(중국), 3위(미국), 4위(일본), 5위(한국)

○ 특히 한국이 **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공업개발이사회(IDB: Industrial Development Board) 53개 이사국 중 하나**로 '88년부터 활동해오고, 한국의 **산업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나누고자 투자진흥사무소*를 '87년부터 운영**하면서 이미 적극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함

* UNIDO ITPO(Investment and Technology Promotion Office) :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투자·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운영. 세계적으로 9곳이 운영 중이며 그 중 하나가 서울에 위치 (바레인·베이징·상하이·본·이탈리아·일본·나이지리아·한국·러시아)

□ 특히 한국은 **개도국의 산업발전에 가장 큰 과제**로 부각되고 있는 산업의 **녹색전환(green transition)과 관련**해, 국제적 탄소중립 노력에 선제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정책기조와 **산업구조 전환노력을 소개**하고,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**개도국 산업구조의 녹색전환에 있어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**는 입장을 표명함

○ 뮐러 사무총장도 한국의 이러한 녹색전환 노력이 개도국에게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, 구체적으로 울산의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이 국내외에서 인정받아 '16년 **제4차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녹색산업회의* 개최지로 울산이 선정**된 점과 '21년 **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와 한국에너지공단**이 **개도국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**

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** 추진에 합의한 점 등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언급함

* 경제를 촉진하는 녹색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주관 국제 컨퍼런스로 정책 수립자, 국내외 전문가 및 인사 등이 참여하며 회의·토론과 전시회·간담회 등 부대행사로 구성

** '21년부터 5년 간 태국 등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컨설팅, 워크숍 등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원

□ 또한 여 본부장은 최근 **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교란 손해 우려**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**원부자재의 공급망 강화가 매우 중요**하다고 지적함

○ 이를 위해 주요 개도국과 「튼튼한 연대와 협력 협력 관계」에 기반한 **양자적 통상협력**을 통해 **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**하고, 유사시 **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해 공동 대응**하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, **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와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하여 체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**함

○ 뮐러 사무총장도 이러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**매우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**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함

□ 여 본부장은 한국은 고유한 산업발전 경험을 기반으로 특히 **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를 비롯한 개도국 지원 관련 국제기구에서 의미있는 기여를 하기에 적합한 위치**에 있음을 강조하면서, 특히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에 **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진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**을 표명함

○ 뮐러 사무총장도 이에 동의하면서, 그간 **한국정부로부터 파견된 공무원들이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**을 해왔으며 향후에도 한국인의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언급함

< 유엔공업개발기구 사무총장 이력사항 >

- (성명) 게르트 뮐러(Gerd Müller) / (생년월일) 1955. 8. 25.
- (학력) 경제·사회과학 박사, 비즈니스 교육 석사, 국제농업정책 명예교수
- (주요경력) 2021.12월 유엔공업개발기구(UNIDO) 사무총장 부임
  - o 2013-2021 연방 경제협력개발부 장관, 세계은행 이사
  - o 2005-2013 연방 식량·농업·소비자보호 차관
  - o 1994-2005 독일 연방 의회 의원
  - o 1989-1994 유럽 의회 의원
  - o 1980-1989 직업 학교 교사 / 바이에른 경제부 정책담당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최정연 사무관(☎ 044-203-593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